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 전북자치도, 전북은행·우정청과 협약 체결 급여 모니터링으로 임금체불 등 적극 대응

전북자치도가 내실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전북우정청(청장 이승원)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급여계좌 개설 및 설

명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한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도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인 계

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필품 지원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상생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정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송금 수수료감면 쿠폰 및 국제특급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우체국계좌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공적역할 수행으로 지역 인구의 소멸 위기 대응에 우정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식(MOU)을 통해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 근로자 입국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4월 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현장에 투입되어 농촌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은행·전북우정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평가 결과 발표

### 도, S등급 3개소 선정... 남원조공, 순창조공, (주)농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10일 2일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이란 시·군 내 지역농협 등 유통조직들이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출하했던 것을 한 개의 조직이 담당해 마케팅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마케팅조직'이라고 한다.

도는 해마다 통합마케팅조직들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농업인 조직화 교육·마케팅·상품화에 필요한 사업(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크게 2개로 분류되는 통합마케팅조직을 시·군 중심의 '지역 연합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13개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품목광역조직' 3개로 나눠 그룹별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 도내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16개소가 전원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고 성적인 S 등급을 차지했고, 품목광역조직에

서는 (주)농산이 S등급을 받았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전국 117개 조직 중 8위를 차지해 이번 전문품목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조직이다.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직화 참여농가 증가율, GAP 인증비율 및 거버넌스 개척실적 등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가점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2위를 차지하며 S등급을 받았다.

(주)농산은 수출실적과 참여농가 증가율, 비대면 마케팅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품목광역조직의 3개 조직 중 1위로 S등급을 차지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는 단순한 조직운영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난 1년간 우리 농업인의 피와 땀이 일구어낸 결실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통합마케팅 조직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공익성을 기반으로 육성된 조직인 만큼 농가소득 향상 등 도내 농업인을 위해 산지유통조직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안전 전북 위해 현장 행보

### 김종훈 경제부지사, 진안고원시장·마이산 여행자센터 방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전북 지역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걷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 부지사를 주축으로 진안군 공무원, 진안소방서, 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6일 진안고원시장과 마이산 여행자센터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진안 고원시장은 58개 점포가 입점해 특산물인 인삼과 고추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정육, 생활용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마트형 시장으로, 청년물에도 1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마이산 여행자센터는 여행자 쉼터와 함께 내부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설치해 도내 영유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다.

이날 점검은 먼저 분야별 전문가들

과 공무원이 점포별로 방문해 건물 손상·균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와 전선 손상,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가스 배관 부식 및 누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진안소방서 소방관들도 수신기 상태, 스프링클러, 유도등 정상 작동 여부, 소화전 앞 적재물 비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점검반원들에게 "전통 시장 화재원인 1위는 전기적 요인으로, 사람이 없는 야간에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 사항 개선에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협조 요청했다.

시장 점검을 마치고, 점검반원들은 마이산 여행자센터로 이동해 어린이 이용시설 전문 점검 기관으로부터 최

근 점검 결과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설치된 시설들을 직접 손으로 움직여 보며 작동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아이들끼리 부딪치거나 좁은 틈에 손이 끼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관계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여기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과할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안전사고 대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 캠페인 18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새만금과 함께 하는 환경 캠페인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재활용 캔을 이용한 공동 조형물을 완성하고 '친환경 공예 제품 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새만금과 환경보호의 공존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고래 조형물 제작, 페이스 페이팅, 자투리 나무 하트 팔찌 만들기, 바다유리 재활용 컵 받침 만들기 등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깨끗한 캔을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방문해 행사장 인근에는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홍보관, 메타버스 체험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스마트팜 청년창업 7기 교육생 모집

### 도, 6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팜 선도할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원장 이태수)은 청년창업 교육생을 6월 20일 오후 3시까지 모집하고, 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7일 2시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교육대상자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지역과 전공에 관계 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을 교육하는 입문교육 2개월(180시간)과 전문가 지도하에 종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 6개월(480시간)으로 구

성된다. 이어서 자기 책임하에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영농과 농업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 과정 1년(96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입문교육 교육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 당일 숙식비와 교육형 실습과정부터 교육실습비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형 실습기간 동안에는 영농재료비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자격,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융자) 신청자격,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자격, 청년 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전북스마트팜 청년보육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교육 운영이다. 타 지역과 달리 교육운영 전문가 5명을 전진 배치하여 실습 과정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 또한 5명 이내의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실습 온실과 학습공간을 배정함으로써 팀원의 결속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